

## 금요 양성 2026년 1월 23일 (단위형제회와 나누시오)

### 권고들에 집중 (4,6,9)

<https://www.franciscantradition.org/francis-of-assisi-early-documents/the-saint/writings-of-francis/the-undated-writings/the-admonitions/144-fa-ed-1-page-128>

#### [4. 아무도 장상직을 자기의 것으로 삼지 말 것입니다]

<sup>1</sup>“나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다.”<sup>마태 20,8</sup>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.

<sup>2</sup>다른 사람들 위에 있게 된 이들은, 형제들의 발을 씻어 주는 직책을 위임받은 것을 자랑하는 만큼 그 장상직을 자랑할 것입니다.<sup>3</sup>그리고 발을 씻어주는 직책에서 면직될 때보다 장상직에서 면직될 때 더 흥분한다면, 그만큼 영혼의 파멸 쪽을 향해 자기의 “돈주머니를” 챙기는 것입니다.<sup>요한 12,6</sup>

#### [6. 주님을 따름]

<sup>1</sup>모든 형제들이여, 우리 모두 당신 양들을 속량하기 위해 십자가의 수난을 견디어 내신 착한 목자를 주의 깊게 바라봅시다.

<sup>2</sup>주님의 양들은 “고난과 박해”, 수치와 “굶주림”<sup>로마 8,35</sup> 연약함과 유혹 등 모든 점에서 주님을 따랐습니다. 그리하여 주님에게서 영원한 생명을 얻었습니다.

<sup>3</sup>그러므로 성인들은 이렇게 업적을 이루었는데 우리는 그것을 그저 이야기하고 설교만 하며 영광과 영예를 받기 원하니, 이것은 하느님의 종들인 우리로서 대단히 부끄러운 일입니다.

#### [9. 사랑]

<sup>1</sup> “너희 원수를 사랑하고 너희를 미워하는 사람들에게 잘해주고 너희를 박해하고 중상하는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하여라”. <sup>마태 5,44</sup>

<sup>2</sup>따라서 자기 원수를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은 자기가 당하는 해로 말미암아 곤경에 처하지 않고,

<sup>3</sup>오히려 그의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하느님의 사랑때문에 가슴 때우는 사람입니다.<sup>4</sup>그리고 그에게 행동으로 사랑을 보여줍니다.

토론이나 저널 쓰기를 위한 질문

- + **권고 4**는 형제회안에서의 섬기는 지도자로서의 내 역할에 대해 어떤 영감을 줍니까?
- + 가정에서 부모로서의 나에게 또는 내가 속한 공동체의 지도자로서의 나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?
  
- + **권고 6**은 그리스도를 따르는데 일에 강해지도록 어떻게 격려를 합니까?
- +그리스도를 위해 고통을 어떻게 다룹니까?
- +그리스도에 대한 나의 헌신을 다른 사람들에게 어떻게 설명합니까?
  
- + **권고 9**에 대한 생각할 때 생기는 당신의 반응은 어떠합니까?
- + 이 권고를 살아낼수 있습니까?